

수철이(중암고 1년)와 창규(한양대 3년)가 곡괭이를 잡고 나섰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답지 않게 능숙하게 원추리를 캔다. 뒤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는다. 땀방울이 리뽀는 햇볕 사이로 팍팍울이 반짝거린다. 농촌으로 간 학생들. 그들은 왜 여기에 온 것일까.



대한불교청소녀연합회 농촌 일손돕기 현장

고교·대학생 회원 25명 부여 거전마을서 팍스테이 발일·페인트칠 등 울력하며 "농촌 이해·일의 가치 배웠죠"



새 세상 느끼게 한 달콤·살벌 품앗이!

밭에서 캐낸 원추리를 포대에 담아 마을로 나르고 있는 학생들. 한여름 더위로 많은 땀을 흘렸지만 흘린 땀만큼 보람도 크다.

**#농촌사람들과의 만남**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25일 오후.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마을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찾아들었다. 대한불교청소녀연합회의 '농촌일손돕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25명.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작업복 차림으로 나섰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거전마을의 이길용(54) 이장, 서용순(41) 부녀회장, 김혜정(36) 부녀회 총무, 그리고 김운환(51) 사무국장이 환하게 웃으며 학생들을 맞았다.



원추리 캐고 더듬기, 방수액, 이렇게 칠하는 거 맞죠? 마을지도 그리기 쉽지 않네! 여름엔 역시 '물장난'이 최고!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가세요. 환영합니다." 이길용 이장이 인사말을 하자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대에 답한다. 김운환 사무국장이 3일간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임무'를 부여했다. 마을회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게시판에 마을 안내도를 그리고 마을회관 좌우에 설치돼 있는 두 개의 정자에 방수페인트를 칠하라는 것이다.

"단결해서 다른 모둠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모둠 양철·동대부고 2년)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모둠 김성수·동대부고 2년)

학생들을 본 마을 어르신들이 학생들을 정자 아래로 불러 모은다.  
"거기 뜨거워, 이리로 와."

**#꼭 해보고 싶어요!**  
"원추리 캐는데 자원할 사람!" 김 사무국장의 말이 떨어지자 민규(동국대 1년)와 예나(삼육대 1년)가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자 남학생들이 모두 해보고 싶다고 나섰고, 자그마한 체구의 1모둠 반장 미순이도 가세했다.

**#학생들의 농촌체험 '출사표'**  
임무가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더니 각 그룹별로 회의를 한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불교청소녀연합회 지수연 기획팀장은 그런 학생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 연합회는 '그룹'이라는 외래어 대신 협동의 의미인 '모듬'이라는 우리말을 쓰고 있었다.

**#마을 안내판 만들기**  
안내판 그리기를 맡은 3모듬의 서연철(한양공고 1년)·조용호(동대부고 1년)·함성훈(서일대 1년)과 연합회 임지혜 총무가 트럭 뒤에 올라타고 마을 탐사에 나섰다. 거전마을 오른쪽에 위치한 '닭바실마을'로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다. 덩달아 연철이, 옹호, 성훈이의 손놀림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페인트칠은 처음인데...**  
"내가 제일 잘하지. 이것 봐 잘 칠해졌잖아." 2모듬의 단비(서울 해성여상 2년)가 정자 한 복판에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페인트칠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2모듬 반장인 양철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페인트를 옷에 안 묻히려고 했는데, 벌써 묻어버렸으니..."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원추리는 백합과 풀로 이노작용에 좋고 번비에 도 좋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이걸 먹고 시원하게 배설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김사무국장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나가 "저 번비 있는데, 이거 싸 갈 수 있어요?" 하며 너스레를 떨자 한마당 웃음꽃이 피었다.

3개 모듬이 각각 반장을 뽑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지 팀장에게 알리고 각 모듬 반장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겁니다. 최강 1모듬이 됩시다." (1모듬 최미순·서울 해성여상 2년)

"재미있느냐"고 묻자 연철이가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하며 웃는다. 거전마을 왼쪽 정골마을에서도 학생들의 스케치는 계속됐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쉬운 리가 없다. 1모듬 반장 미순이는 "페인트가 동이 나 더 칠할 수가 없다"며 정자에서 내려왔다. 페인트가 모자라기도 했지만, 자신이 칠한 곳이 다른 사람이 칠한 곳과 색깔이 달라 덧칠을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원추리는 백합과 풀로 이노작용에 좋고 번비에 도 좋아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이걸 먹고 시원하게 배설하고 활동을 시작해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김사무국장의 설명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나가 "저 번비 있는데, 이거 싸 갈 수 있어요?" 하며 너스레를 떨자 한마당 웃음꽃이 피었다.

**#우리는 지금 농촌에 있다**  
농촌, 생태, 품앗이 이 모두를 하루 이틀 만에 배우

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원추리가 어떤 풀인지, 농촌은 어떻게 생겼는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름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농부들의 얼굴 색깔은 어떤지, 정자에 앉아보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알게 됐으니까.

"재미있는 경험도 할 테고, 힘든 경험도 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농촌체험 제목도 '달콤 살벌한 품앗이'로 했어요."

지수연 청소년 연합회 기획팀장의 말대로 보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26일과 27일에는 시장을 봐와서 직접 끼니를 해결하는 '농촌시장체험'과 함께 수학, 마을계획 주변환경 미화, 부여탐방 등으로 2박 3일간의 농촌체험을 마무리했다.

부여/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농촌체험 올해로 두번째 보람 찾고 자연 소중함 배우고

대한불교청소녀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지난해 조치원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가 두 번째다. 불교청소녀연합회의 농촌체험은 심성 계발과 생태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동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농촌체험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을 이해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보람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농촌체험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면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